

교회의 역사

신성근 신부

주님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라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에 따라 초대 교회 사도들을 시작으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는 곧 복음 선포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또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받은 수많은 도전(挑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응전(應戰)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작용하셨는지도 깨달을 수 있다.

I. 세계 교회사¹⁾

1. 교회의 시작과 초대 교회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사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시작하였다.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한 이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아직 온전한 공동체 모습을 갖추지 못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대교 종파 중의 하나로 보았다.

그러나 초대 교회 공동체 교우들은 점차 자신들만의 예배, 즉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를 거행하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단과 그들을 보좌하는 이들로 공동체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초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나눔의 삶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 밖으로까지 전파되고 공동체는 점점 확장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삶으로 증명하는 이들을 그리스도교인이라 불렀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되던 그리스도교는 차츰 그리스인, 로마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 즉 예수님의 열두 제자인 사도들과 바오로 사도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제자들의 열성적인 복음 선포 활동은 그야말로 성령의 이끄심임을 알 수 있다. 그 덕분에 로마제국 안에 있는 큰 도시들 대부분에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기원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날로 커져 나갔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어느 정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나름대로 교리와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뒤 2세기로 접어들면서, 지역공동체 주교를 중심으로 사제(장로)와 부제들로 이루어진 지역공동체 곧 지역 교회들이 생기게 되

1) 이 글은 여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제2차 바티칸공의회까지의 세계 교회사를 아주 간단하게 간추려 그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었다. 이들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교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급속도로 로마제국 안에 퍼지게 되었다. 교회가 발전하면서 로마제국의 황제들과 잦은 마찰이 있게 되었고, 이는 박해로 이어졌다. 특히 2세기부터 4세기 초에 걸친 대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를 낳게 되었다. 이때 순교자들의 피의 증언은 그야말로 교회가 확장하는데 크나큰 촉매제가 되었다. 이로써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2. 신앙의 자유와 5대 교회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거듭하던 초대 교회는 비로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더구나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 황제들의 호의적인 도움 덕분에 세계적 종교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92년에 그리스도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선포하는 포교령을 내렸다. 이로써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그리스도교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발전하게 된다. 특히 많은 수도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우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도움을 주었으며, 신앙생활의 활성화는 전례의 발전을 동반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때 큰 역할을 한 것이 공의회이다. 공의회는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조직으로 등장하였고, 여러 갈등과 교리 논쟁 등이 공의회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공의회의 최종적인 결론은 정통 가톨릭 교리가 정립되는 결과가 되었다.

당시 로마제국 안의 큰 도시들에 세워진 교회들은 성덕이 출중한 주교들과 뛰어난 신학자들의 영향으로 전례와 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주위의 작은 지방교회들은 이 큰 교회들로부터 전례와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느 일정한 지역 전체에 영향을 행사하는 큰 교회들이 생겨났다. 이들 교회들을 총대주교좌(總大主教座) 교회라고 불렀다. 5세기에 이르러 총대주교좌 교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콘스탄티노폴리스(현재의 이스탄불),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들 교회는 서로 협력하면서도 각자 서로 다른 역사를 형성하면서 발전하였다. 로마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로부터 파생된 교회를 현재 동방교회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다.

3. 서방교회(로마교회)의 발전

5세기에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로마제국을 멸망시키자, 그리스도교 존립에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도 교회는 본래의 사명인 선교 열의를 잃지 않고 영국에 선교사를 파견하였고,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 정착한 게르만족을 개종시켰다. 이로써 고대 그리스 문화와 게르만 민족이 융합하여 새로운 중세문화를 탄생시켰다. 이는 유럽의 국가들이 공유한 민족적 특성을 보이면서도, 같은 신앙 안에서 일치된 중세 그리스도교의 기원이 되었다.

4. 중세 전기의 교회

중세 전기(750~1054년)에는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서구 그리스도교 제국이 창설되었다. 이 시기에는 그리스도교의 교세가 확장하면서 교황령(敎皇領)이 생겨나는 등 외적으로 더욱 발전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부터 황제를 비롯한 정치 권력의 간섭을 받아 교권이 약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더구나 교회와 국가의 밀착 관계는, 국가의 정치적 붕괴와 함께 교회의 권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한이 쇠퇴하는 교회의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암흑기 동안에 그리스도교는 처음에 로마 귀족의 지배를 받았고,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내정간섭으로 교회의 자율성을 잃게 되었다. 특히 성화상 파괴 논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신학적 충돌을 하였으며, 교리 논쟁 이후로 서방 라틴교회와 동방 비잔틴교회는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1) 성화상 파괴 논쟁

5~7세기 사이에 동방교회들 안에는 대중 신심으로 성화상 공경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이 성화상에 대한 지나친 공경은 자칫 교우들을 우상숭배로 빠지게 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성화상들을 파괴하는 운동이 100여 년 동안(726~843년)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는 제국 안에서 교회박해, 폭력 사태, 정치적 혼란 등을 유발하였다. 이때 성화상 공경을 찬성하는 서방교회(로마교회)와 이를 금지하는 동방교회 사이에 논쟁이 일었고, 결국 843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회의에서 성화상 공경을 인정하고 부활시킴으로써 성화상 논쟁이 막을 내렸다.

2)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결별

남부 이탈리아에 위치한 교회의 영향력 행사를 둘러싸고 로마교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1054년 서로를 파문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후 동·서방 교회는 1965년 서로의 파문을 철회하고 화해하기까지 결별상태에 있게 되었다.

5. 중세 후기 교회

중세 후기(1054~1300년)에는 수도 공동체의 개혁운동과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의 교회쇄신으로 교회는 새롭게 활성화되었다. 이때 교회는 세속적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회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을 지배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성직자와 수도자를 각성시켰고, 평신도의 영성 강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는 11세기에 시작된 십자군 운동과 청빈 운동에서 나타났다. 즉 이슬

람교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인들이 성지순례에 불편을 느끼다 못해 방해받기에 이르렀다. 이때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 1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서방교회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교황 우르바노 2세는 1095년 두 차례의 종교회의에서 서방 그리스도교 국가에 도움을 호소하였다. 이때 동방교회를 돕기 위한 염원과 이교도로부터 성지를 탈환하려는 열망은 서구 세계를 하나로 단결시켰다. 이것이 십자군 운동이다. 이 십자군 운동은 대중의 종교적 운동으로 시작되어 약 200여 년(1096년~125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십자군 운동은 성지 탈환이라는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일어났지만, 기사들의 모험심과 명예욕 등의 세속적 동기도 한몫하였다. 하지만 기사들의 이와 같은 동기는 비그리스도교적인 폭력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십자군 운동이 중세의 잔인한 현상으로 변질하여 나타나기도 했다. 반대로 십자군 운동은 기사 수도회의 탄생을 가져왔고,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는 학문 특히 스콜라 철학과 신학 그리고 예술의 발달에 이바지 한 점 등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 종교개혁이라는 변곡점과 교회

1) 종교개혁 이전

14~15세기(1300~1500년)에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는 여러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교회의 고유한 단일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교회는 교황청의 아비뇽 천도라는 일련의 대사건으로 교황권의 약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프랑스인 교황들이 프랑스의 아비뇽에 머무는 70여 년 동안(1305~1377년) 교회는 중심을 잃었고, 교회 개혁 또한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로마로 다시 교황청을 옮긴 이후에 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곧 세 명의 교황이 선출됨으로써 서로가 자신을 정통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전체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콘스탄스 공의회(1414~1417년)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분규는 일단락되었으나, 그 후유증은 영성의 쇠퇴와 신학의 퇴보 그리고 교회쇄신 작업의 실패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반대중의 신심 생활은 매우 활발하였으며 이는 수많은 성당의 건립과 자선활동과 신심서의 보급 확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성경을 모국어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신심 운동 곧 묵주 기도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성지순례 등이 활성화되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신심은 개인주의적 면이 가하였고, 현세적 두려움을 피하고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미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교회 안에서는 비판과 함께 교회쇄신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이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 종교개혁과 교회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수사신부이며 성서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등장한다. 루터는 대사(大赦) 남용에 대해 항의하고, 대사 교리

재정립을 위해 교구장을 비롯한 동료와 교수들 그리고 사제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 그 유명한 95개 조항의 신학 명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정통신앙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그리스도교 교계를 가톨릭과 개신교로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다.

(1) 마르틴 루터(1483년-1546년)

당시 루터는 사목자로서 설교를 통해 대사 교리와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대사 설교가들을 비판하였고, 교우들에게는 대사 남용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원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어떤 착한 행위를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 있다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2) 대사논쟁(大赦論爭)

1506년 성 베드로 성전을 개축할 때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기에, 교황들은 전대사를 반포하며 교우들에게 재정지원을 청했다. 하지만 당시 대사의 반포가 너무 자주 있었고, 그 외에 대사 선전자들 주변에는 탐욕이 뒤따랐다. 더구나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대사는 교회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고, 설교가들은 모금의 성공을 위하여 대사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죄의 용서와 벌(罰) 사이의 구분이 불투명해졌고, 사람들은 대사와 구원을 혼동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교우들은 고해성사에서 강조하는 통회를 등한시하였으며, 돈이면 구원될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대사 교리가 중세 말기의 지배적인 견해였고 여기에 근거한 대사 시행과 대사 판매의 행위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대사 시행에 대해 개혁의 소리가 높았고, 대사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공식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루터가 대사 교리에 대한 토의를 제기하기 위한 '95개 논제'를 공표한 사실은 자연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루터의 이런 논제는 교회 안에서의 개혁이 아니란 점에서는 아쉬운 관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루터의 사상과 대사 논쟁은 결국 루터의 파문과 함께 그리스도교 세계가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영향으로 유럽에서는 독일의 루터 종교개혁을 위시하여 스위스에서는 쾰빙글리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종교개혁 등 급진적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급기야 영국에서는 국교로 성공회가 탄생하였다.

7. 가톨릭교회의 쇄신

가톨릭도 15세기 초부터 교회쇄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던 중에, 종교개혁에 자극을 받아 교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교회쇄신을 위한 공의회가 1545년 트렌트에서 개최되었고, 이 공의회에서 교회에 대해 반성과 함께 신학과 교리를 재정리하고

교회 규율을 혁신하였다.

이 공의회는 종교개혁으로 혼란스러워진 가톨릭 교의를 명백히 밝히었고, 교회를 쇠신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교회는 교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황청을 중심으로 지역교회와 수도원에서 교회쇄신이 일어났다. 트렌트 공의회의 개혁 정신은 선교활동에서도 나타났는데, 유럽의 종교로 머물러 있던 교회가 포르투갈과 스페인 교회를 중심으로 신대륙 탐험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나섰다. 그 결과 가톨릭교회는 동서양에 걸쳐 세계적 종교가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유럽의 가톨릭교회는 세계의 여러 나라로부터 정치, 종교, 사상에서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 특히 안세니즘(Jansenism)과 계몽주의 사상은 가톨릭 신학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8. 근대교회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는 외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다. 그 영향을 받은 가톨릭교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지역에서 점점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세속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과 세속화는 교회가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교황청과 지역 교회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에 제1차 바티칸공의회(1869년~1870년)는 반교회적 요소들에 대한 대처와 이에 따른 교회법의 개혁을 통해 상처받은 교회 권위를 회복하였다. 제1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신앙과 계시의 속성에 대한 헌장을 반포하였고, 아울러 이성과 신앙 그리고 교황의 무류성과 수위권에 대한 헌장을 반포하였다. 그 뒤에 레오 13세 교황은(1878~1903년) 1891년 '가톨릭 사회주의 대헌장' 또는 '새로운 사태'라 불리는 회칙을 반포하여 근로대중을 위한 사회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 회칙은 널리 유포되기 시작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운동을 어느 정도 저지하였고, 그리스도교 노동조합을 창설·발전시키며 가톨릭 정신이 구현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그리스도교적 정당까지 탄생시켰다.

9. 현대교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톨릭교회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우선 성직자 중심의 교회 체제에서 벗어나 평신도의 지위와 사명이 부각되는 '평신도 신학'이 정립되었다. 이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교회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 공동체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세기 가톨릭의 중요한 사건은 교황 요한 23세(1958~1963년)가 소집하여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년)가 마무리 지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0~1965.12)이다. 이 공의회에서 교회는 화해와 쇄신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평화와 구원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급변하는 현대세계에 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동

시에 다른 그리스도교와의 일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비그리스도교 종교들과도 폭넓은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세계를 향한 일치와 희망으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II. 한국 천주 교회사²⁾

1. 한국 교회 설립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문화와 사상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적 요청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중국에서 간행된 각종 책자를 구하여 중국의 사상들을 검토하였다. 그들이 검토한 서적 가운데에는 각종 천주교 서적들이 있었다.

천주교 서적을 접한 권철신(1736-1801년), 정약전(1758-1816년), 이벽(1754-1785년) 등은 천주교에 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얻고자 하였다. 특히 이벽은 부연사(赴燕使) 일원으로 중국 북경(北京)에 가게 된 이승훈(1756-1801)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천주교 책들을 구해올 것을 부탁하였다. 이승훈은 북경에 간 뒤, 교리를 배우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승훈이 가져온 책을 읽고 탐구한 이벽은 정약용(1762-1836년) 형제들을 찾아가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덕망이 높던 권일신(1742-1791년) 그리고 김범우(1751-1787년) 등을 입교시켰다. 1784년 9월(음력) 이승훈은 서울의 수표교 부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이벽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다.

2. 초기의 신앙 공동체

교회 설립 직후 복음 선교에 앞장선 인물로는 이승훈, 이벽, 권일신이 있다. 권일신의 제자인 이존창(1759-1801년)은 충청도 내포 지방에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유항검(1756-1801년)은 전주에서 신앙을 전파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출발한 조선 천주교회는 설립 직후부터 탄압에 직면하였다. 1785년 봄, 형조의 관리들은 서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 모임을 하던 교우들을 검거하였으나,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이 양반인지라 방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탄압에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조직을 다져 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1786년 ‘가성직 제도’를 설정하여 1789년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가성직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관해 북경 주교에게 문의하였다. 1790년에 도착한 답변에서 북경 주교는 가성직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선에 선교사 파견을 약속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였다. 문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한 내용이었다. 그 뒤 조상 제사를 거부한 윤지충(1759-1791년)과 권상연(1751-1791년)이 1791년에 순교하였다. 그들은 한국 교회사에서 첫 순교자들로 기록되었다.

한편 북경의 주교는 조선 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794년 주문모(1752-1801년) 신부를 파견하였으나, 주문모 신부가 전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탐지한 조정에서는 그를 체포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유일(1760-1795년), 최인길(1765-1796년), 지황(1767-1795년)과 같은 신자들이 희생되었다.

초기 공동체 교우들은 명도회(明道會)와 같은 신심 단체를 조직하여 서로 교리를 익히고 자선 활동을 하면서 이웃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명도회의 초대 회장은 정약종(1760-1801년)이다. 그는 신자들을 위하여 순수한 한글로 교리서 『주교요지』(主教要旨)를 저술하였다. 주문모 신부는 최창현(1759-1801년), 강완숙과 윤점혜(?-1801년) 등과 같은 교우들을 중심으로 교회 조직을 정비하고 강화하였다.

3. 초기 교회에 대한 박해

1784년 교회가 세워진 이후,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조선 조정은 1801년 박해를 단행하였다. 이때 주문모 신부가 순교하였다. 당시 최창현 총회장과 명도회 정약종 회장,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 이존창과 유항검이 이때 순교하였으며, 강완숙, 이순이(1782-1802년) 등과 같은 여성 교우들도 이때 순교하였다. 또한 이 박해에서는 앞서 배교를 선언했던 이승훈, 김건순, 이희영과 같은 인물들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정약종을 비롯하여 배교를 선언한 대부분 교우는 사형을 면하고 귀양을 가거나 방면되었다.

한국 교회사에서 황사영(1775-1801년) 백서 사건은 그 의미가 크다. 그는 ‘신앙의 자유’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백서를 작성했지만, ‘무력적 외세’라는 부당한 방법을 제안하였기에 그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인색하게 되었다. 결국 황사영도 자신의 행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

1801년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이 박해는 천주교 신앙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박해를 피해 각처로 흩어진 교우들은 피난처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박해가 끝난 이후 교우들은 교회 재건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았다. 당시 교회 재건에 힘쓴 교우들 가운데는 순교자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1795-1839년) 등이 있었다. 이들은 북경의 주교에게 밀사를 보내어 선교사 파견을 간청하였고, 로마 교황청에까지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주교 파견을 간청하기도 하였다.

4. 조선교구의 설정

1831년 조선인 교우들의 청원을 받은 로마 교황청은 조선에 교구를 설정하고자

하였고, 파리외방전교회에 소속된 브뤼기에르(1792-1835년) 주교는 조선 선교를 자원하였다. 그는 조선교구 제1대 교구장이 되어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였으나, 새로운 사목지를 눈앞에 두고 중국 땅에서 병사하였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1835년 이후 조선에 입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1839년 다시 박해를 일으키어 앵베르(1796-1839년) 주교를 비롯한 3인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체포해 처형하였다. 이때 순교한 교우들로는 유진길(1791-1839년) 등을 들 수 있다. 정하상이 「상재상서」를 지어 천주교 신앙을 변호한 것도 바로 이 박해 때였으며, 그 또한 이때 순교하였다.

조선에 들어온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김대건(1821-1846년), 최양업(1821-1861년) 등을 선발하여 중국의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였다. 그 뒤 김대건은 한국인 최초로 사제로 서품되어 국내에 돌아와 활동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몇몇 교우와 함께 선교사를 맞이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체포되어 1846년에 순교하였다. 그리고 최양업도 사제가 되어 1849년에 귀국하였다. 최양업 신부는 산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집전하면서 교우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1860년대 초의 교회는 거듭된 박해에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고종의 후견인으로 정권을 장악한 흥선 대원군은 1866년부터 1874년 그가 하야할 때까지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그러나 대원군 집권기 중에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기간은 1866년 이후 3년 동안이었다. 이 박해 과정에서 조선에서 선교하던 12명의 프랑스인 가운데 베르뇌 주교(1814-1866년), 다블뤼 주교(1818-1866년)를 비롯하여 9명의 선교사가 순교하였다. 1866년에 시작되어 3년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된 박해 과정에서 남종삼(1817-1866년), 홍봉주(?-1866년) 등 많은 신자가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 순교하였다.

지금까지 교회사에 기록된 큰 박해로는 1801년의 **신유박해**, 1839년의 **기해박해**, 1846년의 **병오박해**, 1866년의 **병인박해**를 들 수 있다. 이렇게 100여 년 동안 이어진 박해 과정에서 순교한 사람 가운데 오늘날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1,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순교자들 가운데 1839년의 박해와 1846년의 박해 때에 순교한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79위는 1925년 로마에서 복자로 선포되었다. 또한 1866년의 박해 중에 순교한 이들 가운데 24위도 1968년 로마에서 시복되었다. 이들 103위의 복자들은 1984년에 성인으로 선포되었다. 이로써 세계 교회는 103위로 대표되는 수많은 한국 순교자를 확실히 기억하게 되었다.

5. 시대의 변화와 교회의 선교 정책

1)신앙의 자유

19세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조선의 역사와 교회사는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음으로써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그 후

조선은 1882년에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고, 유럽의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1886년에는 프랑스와도 조약을 맺었다. 이로써 조선은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함과 동시에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최말단에 편입되었다.

조선인 교우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묵시적으로 용인되었을 때는 1882년이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1895년의 정부 사면령을 들 수 있는데, 조선 조정에서는 1866년 박해 때에 순교한 일부 교우들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사면 대상인 교우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는 신앙의 자유를 공인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되었다. 또한 조선교구 제8대 교구장인 뮌텔 주교는 고종을 만날 수 있었고, 이때 고종은 1866년의 박해[병인박해]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며, 뮌텔 주교에게 친선을 제의하였다. 뮌텔 주교는 1895년을 마침내 박해가 막을 내린 때로 기록하였다.

2) 개항기의 선교와 정교분리 정책

개항기 조선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선교회는 프랑스의 파리외방전교회였다. 선교사들은 조선 사회에 정교 분리론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국주의 침략이 강화되던 때, 선교 지역의 정교분리 정책은 두 가지 다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가톨릭 선교 발전과 제국주의의 확산이 가질 수 있는 상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주장하던 정교분리 정책은 비인간적 식민지 통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시도로 강조되었다. 교회의 정교분리 정책은 제국주의 세력의 식민 정책에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3) 개항기의 교회 상황

조선 사회는 문호 개방 이후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항기의 교회는 조선교구의 제7대 교구장에 블랑 주교가 임명된 1883년 이후 큰 발전을 보인다. 물론 그 뒤에도 정부는 선교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교회의 토지 구입을 문제 삼기도 하였다. 또한 개항 이후 서울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묵인되었지만, 일부 지방 관리들은 신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였다. 그리하여 거제도 출신 윤봉문은 1888년 진주에서 순교하였다. 그리고 전라도 장성, 강원도 안협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교우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해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었다.

6. 일제 강점기 시기의 교회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전 민족적 저항에도 조선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상황은 민족이 독립하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에 일제는 한반도에서 식민 정책을 집행해 나갔다. 그들은 식민 정책의 하나로 이른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종교에 대한 교묘한 규제책을 시행하였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 당시 조선 천주교회의 교우 수는 73,517명이었고, 성직자는 62명(외국인 선교사 47명, 조선인 신부 15명)이었다. 특히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뮌텔 주교

가 조선대목구의 교구장을 맡고 있었다. 그 밖의 선교사들도 교회의 지도층을 이루어 조선 교회를 직접 관장하면서 선교의 방향을 정하였다.

여러 어려움과 악재 속에서도 식민지 시기의 조선 교회에서는 교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1920년에는 성 베네딕도회 수도원에서 담당하는 원산 대목구가 설정되었으며, 1928년에는 원산 대목구에서 연길 지목구가 분리되었고, 1940년에는 덕원 자치수도원구와 함흥대목구가 설정되었다. 1927년에는 미국 메리놀 외방전교회에서 관할하는 평양지목구가 설정되었다가 1939년에 대목구로 승격되었다. 1937년과 1939년에는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가 광주와 춘천에 진출하였다.

강점기 시기 조선인 성직자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조선인 성직자가 관할하는 교구의 설정이 요청되었다. 그 결과 1928년에 서울교구장 뮌텔 주교는 황해도 일대에 서울교구에 속하는 준 자치적인 감목대리구를 설정하고 감목대리구장에 조선인 성직자를 임명하였다. 이에 황해도 교회에서는 ‘자치기성회’를 구성하고 교구 독립을 추진하였다.

한편 대구교구는 1931년에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을 대구교구에 속하는 감목대리구로 편성한 바 있다. 이 감목대리구는 1937년에 이르러 전주지목구로 발전되었다. 전주 지목구 설정은 당시 비오 11세 교황이 추진하던 현지화정책과 관련이 있다. 전주 지목구의 설정으로 조선 교회는 선교사 위주의 교회 운영에서 조선인이 교회를 관리하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당시 교회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루고 있는 순교자에 대한 공경이 개항기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순교자 공경은 1925년의 ‘조선 순교 복자 79위 시복식’ 이후로 더욱 커졌으며, 1931년에는 조선 교회의 뿌리와 전통을 거듭 확인하고 선양하고자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경축 대회 행사도 열었다.

7.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

1) 분단 시대의 출현과 교회

해방은 한국사와 한국 천주교회 사에서 현대의 기점이 된다. 한국이 해방된 8월 15일은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그러나 해방 직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하는 과정에서 교회도 분단의 피해를 받았다. 특히 1950년 한국 전쟁 직전까지 북한 지역 성직자 대부분이 체포되었고 교회는 폐쇄되고 수도원은 해산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으로 남북한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북한 지역 교회 활동은 거의 정지되었고, 대구교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교회에도 큰 피해를 줬다.

2) 한국 교회의 성장

1953년 휴전으로 남북 분단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휴전 이후 사회가 점차 안정되자 남한의 교회는 파괴된 교회를 복구하고 선교 활동을 재개해 나갔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인적 손실은 외국의 선교사와 수도회의 지원을 통해서 보완되어 갔다. 외국 교회의 지원은 교회가 입은 물질적 손실을 복구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휴전 직후 남한 교회는 매우 높은 교우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1953년 남한의 신자 수는 대략 17만 명 정도였다.

한국 교회는 교세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교구가 증설된다. 지목구였던 춘천이 1955년에 대목구로 발전하고, 1957년에는 광주대목구, 전주대목구, 부산대목구가 설정되었다. 이어서 1958년 대전대목구가 설정되어, 해방 직전 일본 식민지 정권의 강요로 은퇴를 강요당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라리보 주교가 정식으로 교구장에 취임하였다. 청주대목구(1958년)와 인천대목구(1961년)도 설정되어 미국 메리놀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이 두 교구를 관장한다.

1950년대 한국 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각종 신심 단체와 사도직 단체들의 봉사와 활동을 주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로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레지오마리아’의 한국 진출을 들 수 있다. 1953년 전라남도 목포 산정동성당에서 출발한 레지오마리아는, 개인 신심 위주의 이전 단체들과 달리 선교와 교회 활동에 대한 교우들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또한 교회는 극심한 빈곤을 극복하고자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하였다. 1952년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시작된 이 협동 운동을 통해 신자들의 자립 의지도 강화되었다. 이때의 신용 협동조합은 오늘에 이르러 일반 대중의 민주적·재정적 협동 기관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다. 전쟁미망인이나 실업자를 위한 각종 직업 보도 교육도 당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던 사업이었다.

8. 한국 교회의 쇄신

1) 교계 제도 설정과 교회의 쇄신

한국 교회의 교계 제도 설정은 한국 교회가 성취한 1950년대의 발전을 감안한 것이다. 교계 제도 설정으로 한국 교회는 종전의 대목구 체제에서 정식 교구로 승격되었다. 그 뒤 1963년에는 서울대교구에서 수원교구가 분할, 설립되었고, 19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원주교구, 마산교구, 안동교구가 설정되었다. 1977년에는 광주대교구에서 제주교구가 분할되었다.

교계 제도가 설정된 1962년, 전국의 신자 수는 53만여 명이다. 그러나 불과 13년 뒤인 1974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100만 명을 돌파한다. 다시 12년이 지난 1986년에는 200만 명을 웃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천주교 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1984년 당시 약 4.55%에 불과하였다.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는 신자 수 증가에 변화를 보인다. 휴전 이후 1950년대에 이룬 연평균 16.5%의 높은 증가율은 1960년대에 이르러 급격히 하락하여 연평균 6.2%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신자 증가율이 더욱 둔화되어 5.2%로 떨어졌다. 특히 1970년에는 신자 증가율이 1.17%에 지나지 않았고, 1971년에는 불과 0.29%를 기록하였다.

1970년대 이후 신자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이 시기에 입교한 교우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산층 지식인들이다. 1970년대 이후에 전개된 천주교의 정의 구현 운동은 많은 사람에게 천주교에 관한 관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당시 교회 일각에서 실천하던 정의 구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 반면 사회 비판 의식이 강한 새 신자들은 교회 일각에 존재하는 권위주의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새로 입교한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의 한국 교회는 대규모 신앙 대회를 통해 쇄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1981년에 개최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는 교회 현황을 점검하고 쇄신하려는 교회의 의지에 일정하게 이바지하였다. 이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1984년에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행사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한편 1970년대를 전후하여 외국 교회들은 한국 교회의 성장과 생동하는 모습에 깊은 관심을 표현하였다.

2) 현대 한국 교회의 외적 성장

1980년대 한국 교회는 연평균 교우 증가율이 7.5%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이 시기 교우 증가율은 개신교나 전통 종교 신자들의 성장률보다도 2.1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가톨릭 교회가 성취한 성장률은 1960년대(6.2%)나 1970년대의 성장률(5.2%)보다도 높았다. 1984년 한국 교회의 교우 수는 모두 185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는 당시 한국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결과이기도 하였다. 공의회는 교회가 ‘시대의 징표’를 깨닫고 지역 사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천하려던 한국 교회의 노력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회는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회 개발이나 사회 복지 또는 인권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오늘날의 한국 평신도들은 교회를 위한 자발적 봉사에 즐겨 투신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이들의 자원봉사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1984년)과 ‘제44차 서울 세계 성체대회’(1989)를 비롯한 대규모의 교회 행사가 진행되었다.

1984년 이후 한국 교회는 비교적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80년대의 평균 성장률은 7.5%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그 증가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며 평균 4.3%에 이르렀고, 그 감소의 폭은 더욱 가속화되어 2000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2%로 줄어들어, 그 증가 추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하여 갔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신자 증가율이 10.1%로 비정상적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그다음 해부터 증가율이 다시 급속하게 떨어져, 2015년에는 1.7%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7년의 전년 대비 신자 증가율은 1.3%에 불과하여 당해 연도의 인가 증가율(1.4%)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나타낸다.

한국 교회에서는 2017년 교우 증가율의 감소와 더불어 교우들 가운데 냉담 교우

와 거주 미상자의 숫자가 증가해 가고 있다. 물론 한국 교회에서는 2010년 이래 냉담 교우에 대한 숫자를 공식적 교회 통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냉담 교우와 더불어 거주 미상자는 전체 신자들의 50%를 상회한다고 추정된다. 냉담 교우나 거주 미상자의 증가는 현대의 한국 교회가 외적 성장에 비례하여 내적 충실을 다지지 못한 결과였다. 또한 이는 현대 한국 교회 안에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수반하여 한국 교회는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가 급속히 감소하는 길로 점차 접어들게 되었다. 현대 한국 교회는 이러한 여러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청받고 있다.

9. 현대교회와 프란치스코 교황

2013년 2월 11일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사임 발표는 첼레스티노 5세 교황 사임 이후 719년 만에 이루어진 사임으로 가톨릭교회에 큰 반향을 가져왔다. 2013년 3월 13일 오후 콘클라베에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추기경(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교구장)이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교황 명은 프란치스코로 정하였다. 2013년 3월 19일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이후 한국 교회도 새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일은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었다. 2014년 8월 14일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인과 종교인, 아시아 청년들과 주교들, 수도자들과 평신도 특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새터민,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을 만나며 평화를 전하였다.

8월 16일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 천주교 신자 17만 명을 비롯한 ‘100여만 명’ 가까운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식이 있었다. 순교자의 후예들로서 신앙의 영광과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유산을 잘 지키자고 말하였다. 특별히 평신도들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한국 교회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아시아 전역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자고 하였다. 교황은 한국의 순교자들이 당시 자신들이 살던 사회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임을 역설하였다.

10. 마무리

한국 교회는 보편 교회의 일원으로서 민족과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 있으며, 한국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고 이바지해야 할 사명을 지고 있다. 천주교가 한국에 전래한 이후 2세기 이상에 걸친 역사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는 19세기 이후 한때 서구 문화의 전파자로 자임하며 민중에 대한 구원을 ‘독점’하면서 그들을 계몽하려 했다. 또한 1970년대 이후의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스승’으로 자처하거나 해결사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 천년기의 한국 교회가 계속 이와 같은 과거의 역할에만 도취해 있다면, 이는 한국 사회와 교회를 격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는 인류의 복음화와 인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 봉사를 다짐해야 한다. 새 천년기의 한국 교회는 인류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투신하는 모습을 드러내 줄 것이다. 또한 한국 교회는 민족에 대한 봉사의 하나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항상 다시 태어나야 하며 쇄신되어야 한다. 이 거듭남과 쇄신은 하느님 백성 모두의 변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이 변화는 복음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로써 한국 교회는 더욱더 복음적 교회로 바뀌어 한민족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랑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